

(주)파워콤

21세기 T-innovation의 선도기업

(주)파워콤(www.powercomm.com 사장 서사현)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의 비핵심사업 정리방침에 의거 한국전력이 보유한 광통신망과 케이블TV전송망을 분리한 후 현물출자하여 2000년 1월 26일 출범한 신생회사이다. 하지만 자본금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현물출자분 7,133억원과 현금출자분 367억원을 포함해 7,500억 원에 이르며 종사하고 있는 인원도 약 400명에 육박하는 결코 작지 않은 회사이다.



파워콤은 현재 43,000여 km의 광케이블과 38,000여 km의 동축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용으로 시설된 약 5,000km의 관로 및 전력구, 600만본의 철탑 및 전주 등을 기반시설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파워콤은 전력사업용으로 시설된 통신망과 보유자원을 21C 국가 핵심산업인 정보통신사업에 총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중복투자를 예방하여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영역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회선 임대와 종합유선방송의 케이블TV 전송 망 제공 등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전용회선 임대사업이란 전국 망을 필요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회선 또는 광케이블 단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워콤은 4개 무선사업자와 6개 유선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다.

무선사업자의 경우 LG텔레콤의 전국망을 비롯하여 한통M.com, 신세기통신, SK텔레콤 등에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사업자로는 두루넷,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지앤지 네트워크 등이 파워콤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은 프로그램 공급망사업과 가입자 전송망사업으로 구분되며, 현재 파워콤

은 YTN 등 8개 프로그램 공급사(PP)의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으며 전국 77개 지역의 지역 케이블TV 방송국 중 42개 지역에 가입자전송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워콤의 가입자전송망은 쌍방향통신이 가능한 최신의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케이블TV 방송은 물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현재 두루넷이나 하나로 통신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파워콤의 케이블TV 전송망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통신망의 안정성이 파워콤의 최대 장점

파워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파워콤의 통신망은 한국전력에서 구축한 전력사업용 전기설비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볼 수 있다. 전력정보통신용 회선은 본래 전력계통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정보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두절되지 않고 실시간에 유통되어야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하에서 출발한 파워콤의 네트워크는 타 경쟁회사의 통신망에 비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차별화된 통신망이라고 하겠다. 또한 파워콤의 통신망은 전국 6백여만 본의 전주와 철탑에 시설되므로 장애나 사고 발생시 지중선로에 비해서 훨씬 신속하고 간단하게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맨파워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들 수 있는데 파워콤은 한국전력과 기타 기관 및 업체에서 지원한 우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파워콤으로 전직 한 직원들은 모두 수십대 일의 경쟁을 거쳐 엄선된 우수한 인력들이며, 무엇보다도 파워콤의 가능성과 비전을 보고 안정된 직장과 지위를 뛰쳐나온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있는 용사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신생회사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조직 정비를 마치고 조기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최초 'Multi ISP' 서비스 실시

파워콤의 광통신망과 케이블TV망(HFC망)은 거대한 잠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설비들이 이용되고 있는 회선임대시장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통신사업분야로 진출하는데도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2000.9월말 매출액 기준으로 회선임대시장의 시장점유율 1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통신에 이어 업계 2위 수준으로 사실상 임대대상이 통신사업자에 국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파워콤의 숨은 잠재력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년평균 30.5%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인터넷 수요의 급증에 부응하여 파워콤은 국내최초로 'Multi ISP'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익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M-ISP서비스란 단일 ISP에게만 제공하던 인터넷 가입자망을 다수ISP가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HFC망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사업전략중의 하나이다. 특히

파워콤의 케이블모뎀방식은 경쟁기술인 ADSL보다 빠른 전송 속도와 저렴한 이용료로 인하여 광가입자망(FTTx)으로의 이행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파워콤은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제3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에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4.9%의 지분을 확보하여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회선임대 수요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유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시켜 국내 통신시장에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통신시장 재편 이후에도 시장에서의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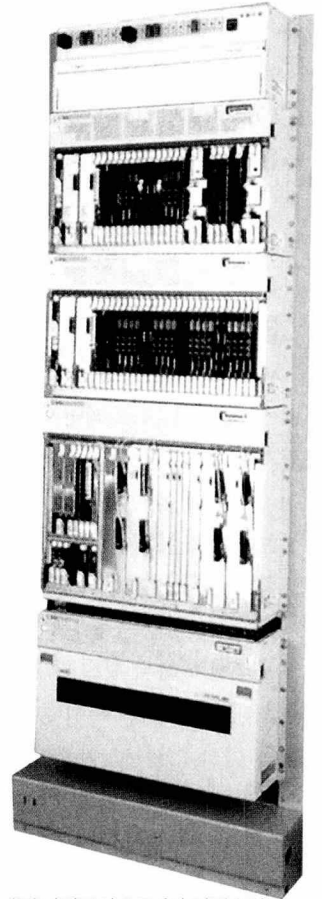
파워콤의 민영화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의 지름길

지금 파워콤은 한창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차 지분 매각시 10.5%의 지분을 매각한대 이어 이 번달에도 일정부분을 매각하여 전략적 주주를 영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파워콤 관계자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모든 통신서비스는 유무선 복합서비스로 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각종 이동전화 서비스를 보아도 그렇고 향후 IMT-2000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통신사업자들이 고품질의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파워콤의 민영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콤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해당 업체는 순식간에 한국통신에 버금가는 전국망을 소유하게 되어 유무선 복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콤의 이런 잠재력 때문에 민영화 후의 상황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파워콤은 보유 자원인 전국적인 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복 과잉투자를 예방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임을 파워콤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파워콤은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립초기부터 모든 통신사업자들에게 고품질의 값싼 통신 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해왔다. 즉, 모든 고객들이 파워콤의 통신망에 대하여 Open & Fair Access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파워콤은 네트워크 제공자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민영화로 인해 파워콤의 경영권이 특정업체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다.



(주)파워콤의 2.5기가 광전송장치

지식정보사회의 뉴리더 파워콤

파워콤은 내외부 고객만족을 통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기업이념을 '새로운 정보통신 문화의 창달'로, 장기비전을 '최고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춘 지식정보사회의 뉴리더'로 정하고 21세기 T-innovation의 선도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열린경영, 책임경영, 스피드 경영, 고객감동' 등을 경영방침으로 제정하여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파워콤의 전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Born Again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Born Again운동'이란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뜻으로 기존의 관행과 제도에서 탈피,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뉴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한 운동이다. 파워콤호의 키를 잡고 있는 서사현 사장은 국가적 차원의 통신망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파워콤의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이를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경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파워콤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도 소홀하지 않도록 경영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파워콤의 통신망을 통해 저렴하고 질 좋은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식정보화 사회'가 구현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사현 사장의 자신있는 맺음말이다.



대표이사 서사현

서사현(徐士鉉, 55세) 사장은 64년 청주고, 68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99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AMP과정을 수료했다. 1971년 행정고시 10회에 합격하여 공직에 몸담은 이후 주 케냐대사관 상무관, 상공부 전자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산업조사국장, 주 중국대사관 상무참사관, 통상산업부 생활공업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차관보) 등 28년간 핵심요직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수출확대 및 경제력 기반구축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각종 국내외 협상대책의 수립추진 등 상공 및 통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고 퇴임 후 전문경영인으로서 한전KDN을 맡아

다각적인 구조조정 및 경비절감, 신사업개발 등 경영혁신을 통해 IMF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내에 사업실적을 원상회복시키는 등 공직경험을 경영에 심분 발휘하였고 대통령표창과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사현 사장은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인화단결을 강조한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직과 성실을 중요시 여긴다. 현재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서울자유의 집 후원회' 회장이로서 노숙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봉사활동도 전개하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등산과 수석수집을 취미로 하고 있는 서사장은 주말이면 직원들과 근교의 산에 올라 함께 땀흘리며 대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큰 낙으로 여긴다.